

東醫寶鑑 해독 처방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김종원 · 전수형 · 정홍식 · 강경화 · 이인선 · 이상훈¹ · 김규곤²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의학연구소, 1: 광동 한의원, 2: 동의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HyungSang Medical Approach to Detoxification

Jong Won Kim, Soo Hyung Jeon, Heung Sik Jung, Kyung Hwa Kang, In Sun Lee, Sang Hoon Lee¹,
Kyu Kon Kim², Yong Tae Lee*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KwangDong Oriental Clinic, 2: Department of Data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Ji-San, the founder of HyungSang medicine, emphasized food intake and detoxification by stating, "Korean medicine begins with detoxification." Toxin accumulates in one's body unless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tay in their harmony. The accumulation of toxin is also caused by western medication or one-sided diet, and detox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ose cases. HwangRyunHaeDok-Tang reduces fire and heat, and the lesion is likely to locate in the upper body. BangPoongTongSung-San can be used for systemic disease. IkWoon-San also reduces fire and heat but mainly focuses on promoting urination. InSamPaeDok-San has an effect of curing the external symptoms of SangHan(傷寒), in addition to detoxification. SeoGakJiHwang-Tang, SoDok-Eum, and SeoGakSoDok-Eum can resolve the heat-toxin when it is located on the surface. SibJeonDaeBo-Tang enhances the detoxifying function of human body. GhamDu-Tang and JaGeum-Jung have a general effect on detoxification.

Key words : hyungsang medicine, Ji-San(芝山), detoxification, toxin, SangHan(傷寒)

서론

일반적으로 독이라는 것은 생체에서 물리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생리적으로 어떤 해로운 변조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이에 대하여 해독은 생체내의 세포에서 유독한 물질을 무독한 물질로 바꾸어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생체에 있어서 부작용이 적은 구조 또는 배설되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일정한 생화학반응이 이루어지게 된다²⁾.

독성 반응이 아주 급격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알게 모르게 몸에 작용하여 피부 발진, 알레르기, 구토, 설사, 변비 등 신체 이상반응을 일으켜 인체의 정상 활동을 방해한다. 이 경우 증상이 완고하며 일반 약물로 쉽게 치료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질환을 앓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 경우 해독이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한의학에서 독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쓰인다. 음식 · 술 · 약 등에 의한 독도 있고, 傷寒 陽毒 · 陰毒, 溫毒 · 暑毒 · 瘧毒 등

外感에 의한 경우도 있고, 蟲毒과 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독에 대하여 쓰이기도 하고, 癰疽, 丹毒, 瘡, 痘疹과 같이 피부에 생기는 질환에 대하여 독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허준은 『東醫寶鑑』 전편에 걸쳐서 음식물 특히 술에 대한 독성을 언급하였으며, 解毒門을 따로 두어 온갖 음식물에 대한 해독을 제시하였다. 형상의학을 주창한 芝山³⁾은 이러한 『東醫寶鑑』의 내용을 중시하여 "한의학은 해독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음식의 섭취와 해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독과 관련하여 김⁴⁾은 술의 해독에 대하여 酒傷의 관점에서 보고하였으며, 김⁵⁾은 형상의학에서 중시하는 생활의 법도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섭생과 음식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⁶⁾는 해독에 사용된 침구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1) 홍중희 고영리, 당신의 삶을 해독하라, 서울: 동아일보사, 2007.
2) 두산세계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0.
3) 芝山 朴仁圭, 형상의학을 주창함.
4) 김민성, 酒傷의 形象醫學的 治療 및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Vol. 5-1, 2004.
5) 김진돈 외, 生活 法度에 대한 形象醫學的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Vol. 5-1, 2004.
6) 이준호, 해독에 사용된 침구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9/01/30 · 수정 : 2009/02/20 · 채택 : 2009/03/03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는 『黃帝內經』 및 『東醫寶鑑』에 설명된 毒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芝山의 해독에 관한 견해와 형상의학에서 자주 활용하는 해독 처방을 선정, 고찰하고,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된 회원들의 임상례를 정리한 임상경험집기 중에서 해독에 대한 우수한 치험례를 제시하여 해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본 론

1. 해독에 대한 고찰

1) 『黃帝內經』 및 『東醫寶鑑』의 毒

『黃帝內經』에서의 毒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약물에 있는 독성을 말하였으며, 『黃帝內經·靈樞·寒熱』에서 瘰癧의 원인을 '한열의 毒'으로 설명하여 병이 오래되어 형성되는 해로운 기운이라고 하였다.⁷⁾

허준은 『東醫寶鑑』에서 毒이 늘 우리 몸에 더불어 있기 때문에 양생을 강조하였고 양생이 해독도 된다고 하였다.⁸⁾ 또한 해독문을 따로 두어 음식물과 약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해독을 제시하고 있다. 음식물 중 특히 酒毒이 알게 모르게 인체에 쌓여서 질환이 발생하므로 酒毒을 제거하는 방법과 처방들이 많이 있다.¹⁰⁾

독과 관련되어 「痰飲·王隱君痰論」에는 담음이 심해지면 腸毒이 생긴다고 하였고¹¹⁾ 溫毒, 暑毒, 瘡毒 등¹²⁾이 있다. 그 외에도 병증이 심해진 경우 毒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丹毒, 傷寒陽毒·陰毒, 熱毒, 寒毒, 溫毒, 時毒 등¹³⁾이 대표적이다.

처방명에 敗毒¹⁴⁾·解毒¹⁵⁾·消毒¹⁶⁾·洗毒¹⁷⁾의 명칭이 들어가는 처방들은 대개 瘡, 痘疹, 癰疽 등 피부 질환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는 인체에서 나타나는 독성반응이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처방들을 각각의 증상에 맞춰서 쓰면 해독처방으로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음식물이나 술 등 직접 인체로 들어가서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내독과, 날씨나 환경 등 외부적 요인도 인체에 대하여 독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東醫寶鑑』에 제시된 독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 병이 오래되어 형성된 독

○ 대체로 사람은 빈속일 때에는 시체를 보지 말아야 한다. 시체의 냄새를 맡으면 혀에 백태가 끼며 입에서 늘 냄새가 난다. 시체를 보려면 반드시 술을 마시고 보아야 독을 피할 수 있다. (기문 금기)

○ 대체로 전염성 열병이 생긴 집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독기를 미리 막아야 한다. 독기라는 것은 땀이 뚝뚝 나는 더러운 독한 기운이다. (기문 금기)

○ 폐저(肺疽)라는 것은 술을 마신 뒤에 술독으로 생긴 열이 가슴에 그득 차서 답답하기 때문에 토했는데 다 토한 다음 피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혈문 구혈 토혈)

○ 상한에 땀을 내야 할 때를 놓치면 열독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혈(瘀血)이 생겨 토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거의 다 양명증(陽明證)에 속한다. (혈문 구혈 토혈)

○ 음증(陰證) 때에는 땀이 날 수 없고 오직 음독증(陰毒證) 때에만 이마와 손등에 찬 땀이 나는데 심하면 물에 씻은 것같이 땀이 난다. (진액문 한출홍증)

○ 장독(腸毒)이 되어 대변에 피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며 힘줄이 땅기어 다리를 절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안팎으로 생기는 병이 몇백 가지인지 모르는데 모두 담(痰)으로 생긴다. (담음문 왕은군담론)

○ 심기(心氣)가 차져서 아프고 얼음덩어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으며 그것이 흑 배속으로 흡어져 들어가 비트는 것 같이 아프거나 그것이 위[上]로 올라가서 머리와 얼굴이 뚝뚝하게 붓고 온몸과 팔다리가 부어서 말랑말랑하거나 흑 가렵기도 하고 흑 아프기도 하며 한쪽 것이 삭아지면 다른 쪽 것이 커지면서 점차 위독한 병으로 되는 것은 담독(痰毒)까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담음문 곤담환)

○ 오랜 이질이 낫지 않았을 때 독기(毒氣)가 장부(藏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닭의 간 같은 것이나 곱과 굵은 피가 섞여 나오는데 [雜膿瘕] 것을 고주리라고 한다. (대변문 고주리)

○ 이것은 양명경락(陽明經絡)이 풍열독기(風熱毒氣)를 받아서 생긴 것이다. 이런 데는 서각승마탕을 쓰는 것이 좋다. (면문 위풍증)

○ 불이 붓는 것을 말하는데 자시라고도 한다. 그 원인은 풍열(風熱)이나 기름지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열이 몰렸기 때문이다. (면문 탐시증)

○ 열로 생긴 눈병과 다른 병을 앓은 뒤에 독기(毒氣)가 눈으로 치밀어서 예막이 생겨 눈동자를 가리운 것을 치료한다. (안문 결명원)

○ 역절풍(歷節風)으로 여러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여기저기가 다 아픈 것과 이것이 오래되어 풍독(風毒)이 생겨 골수로 들어가서 한 곳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풍문 호골산)

○ 4월 날씨에 상하면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상한 병독(傷寒)이 제일 심하다(最毒). (한문 상한)

○ 상한 때에 3음경병(三陰經病)이 심해지면 반드시 음독(陰

7) 대한형상의학회편집위원회 편, 형상의학임상경험집, 서울, 芝山出版社, 2006.

8) 김달호 편역, 『黃帝內經·靈樞·寒熱』, 도서출판 의성당, 서울, 2002, P. 1200

9) 對譯東醫寶鑑, p. 24. 攝養要訣 <葛仙翁 清靜經>曰 人能遺其慾而心自靜 澄其心而神自清 自然六欲不生 三毒消滅. 갈선옹의 『청정경』에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맑게 하면 절로 신이 깨끗해져서 저절로 육욕이 생기지 않고 三毒이 소멸된다."

10) 蒼橘湯, 對金飮子, 葛花解醒湯, 茯苓調血湯, 酒蒸黃連丸, 升麻葛根湯, 解酒化毒散 등이 있다.

11) 對譯東醫寶鑑, p. 199

12) 上揭書, pp. 1105, 1148, 1153.

13) 上揭書, pp. 733, 1080, 1083, 1227, 1105, 1509.

14) 敗毒散, 三黃敗毒散, 人參敗毒散, 荊防敗毒散 등이 있다.

15) 黃連解毒湯, 驅風解毒散, 三黃解毒丸, 烏龍解毒散, 涼血解毒丸, 解毒丸, 疎風解毒散, 神仙解毒丸, 清熱解毒散, 解毒四物湯 등이 있다.

16) 消毒飲, 犀角消毒飲, 普濟消毒飲子, 消毒湯, 清熱消毒飲, 托裏消毒飲, 千金消毒散 등이 있다.

17) 洗毒散, 洗毒湯이 있다.

18) 許浚,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毒)으로 변하는데(한문 상한음독)

○ 상한 때 3양병(三陽病)이 심해지면 반드시 양독(陽毒)으로 변한다.(한문 상한양독)

○ 상한에 반진이 나온 것을 양독(陽毒)이라 하고 춘온병(春溫病)에 반진이 나온 것을 온독(溫毒)이라 하고 여름철의 열병에 반진이 나온 것을 열독(熱毒)이라 하고 돌립병에 반진이 나온 것을 시독(時毒)이라 한다. 이름은 비록 다르나 원인은 다 같이 열인데 모두 심화(心火)가 폐에 들어갔기 때문에 붉은 점이 폐의 배합인 피모(皮毛)에 나타난다. (한문 상한 발반)

(2) 전염성이 있는 독

○ 한 지방이나 한 가정에서 모두 전염되면서 어른이나 어린이를 물론하고 다 앓는 증상이 이질 비슷한 것은 역독리(疫毒痢)이다. 이때에는 반드시 운기(運氣)가 서로 승(勝)하는 것을 보아서 치료해야 한다.(대변문 역리)

○ 전염병은 유행성 전염병의 병독으로 생기기 때문에 역력(疫癘)이라고도 한다. (온역문)

(3) 환경 및 기후로 인한 독

○ 강동(江東)과 영남(嶺南)은 봄과 여름이 바뀔 때마다 산림에서 더운 습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풍습의 독기가 심하다. 이것이 혹 발에 침범하면 곧 장독각기(瘰癧脚氣)가 생긴다.(족문 각기의 원인)

(4) 음식으로 인한 독

○ 치질의 기본 원인은 냉(冷)이므로 찬 음식을 먹지 말고 성생활을 삼가야 한다. 닭고기가 제일 독(毒)이 되며, 성생활을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 그리고 반드시 메밀국수를 먹지 말아야 한다.(후음문 치질금기)

○ 물 기운(水氣)에도 독이 있어 풍습(風濕)으로 변하면 아프고 저리며 붓고 얼굴이 누렇게 배가 커진다(습문)

○ 총적이란 먹은 음식이 물려 몽친 것이 변하여 벌레가 생겨서 된 적을 말한다. (적취문)

○ 흔히 저절로 죽은 소나 말이나 새 등 짐승의 고기를 먹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이 있다. 혹은 천지의 세찬 기운에 감촉되어도 생기고 맛이 맵고 기름진 음식을 절도 없이 먹어 독이 물려도 생긴다. (용저문 정저)

○ 『내경』에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발에 큰 정창이 생긴다”고 써어 있다. 대개 기름진 음식과 주색으로 말미암아 나쁜 독기가 물리고 몽쳤을 때나 소갈을 오래 앓은 뒤에 흔히 이런 현제가 생긴다. (용저문 탈정저)

2) 芑산의 해독에 관한 견해

芑산은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내적조건과 외적조건과 부조화로 인하여 병이 생긴다고 하였으며(19)20), 이는 인체 내에서 독이 발생하는 원인과 같다고 하였다. 즉 음식물에서도 독이 들어오지만 외적조건에 의해서도 독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독에 대하여 해독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독이 체내에 쌓이지 않는 생활의 법도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다(21). 다시 말하자면 芑산은 사람의

환경 조건 중 계절, 육기, 방위 등으로 독이 침투하며, 생활 즉 음식, 거처, 음양, 희로에 의해서도 독이 형성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계절에 맞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음식을 적절히 하고, 기거가 안정되며, 음양이 조화롭고, 적절한 감정조절이 요구되며 이들은 외부환경에 맞게 적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적조건과 내적조건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병이 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의학은 생활법도를 적시하고 양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병이 나면 첫째 운동으로써 조절하고, 둘째 음식을 조절하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약으로써 다스린다고 하였다(22).

芑산은 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의 법도를 중시하고, 해독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의학은 해독에서 시작한다

芑산은 치료에 입할 때 해독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다. 어떤 질환을 막론하고 해독의 필요성이 보이면 해독하는 처방을 먼저 쓴 경우가 많았다(23)

또 독이 되는 것이 인체 내에 있으면 해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질환을 치료하기에 앞서 해독을 먼저 해야 되며, 질병을 따지기에 앞서, 환자의 외적조건과 내적조건을 살펴서 해독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치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하였다(24)25) 해독이 치료의 시작이며 다른 치료보다 우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풍환자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酒毒이라면 주독을 풀어야 한다고 하여 해독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2) 사람은 독을 먹고 산다

芑산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먹는 음식물은 다 독이 있다고 하였다. 다 독이 있는데 인체가 해독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

21) 上揭書. p.3 “人體는 內的條件과 外的條件이 相應合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病이 오고 끝내는 生存 할 수 없다. 여기서 外的條件은 時間, 空間, 場所, 方位를 말한다. 內的條件은 飲食, 居處, 陰陽, 喜怒를 말한다. 이 말은 自然環境이 봄이면 人體도 봄이 되어야 하고 여름이 되면 人體도 여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2)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VI, 서울, 芑山出版社, 1999. p. 38

23)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II, 서울, 芑山出版社, 1999. p. 371

“그럼! 한약은 해독을 위한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독을 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해독을 먼저 시켜야 하잖아? 그러니까 한의학은 해독문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요즘의 미식가들은 별별 이상한 음식들을 다 찾는데 만일 원숭이糞을 먹고 그 독이 사람에게 왔다고 하자. 또는 코끼리고기를 먹고 독이 사람에게 왔다고 하자. 이 경우에 자급정을 먹으면 해독이 돼. 그러니까 일명 만병해독단이라고 하는 거야. 또 돌연변이가 된 것도 자급정을 먹으면 된다. 에볼라와 같이 전세계에 유행하는 과질이나 쇠고기를 먹고 생긴 광우병에도 좋을 거야.”

24)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VI, 서울, 芑山出版社, 1999. p. 124

“학생 : 술을 먹고 중풍에 걸렸다면 이것도 풍약을 써야 합니까?

芑山선생 : 술로 인한 중풍은 주습부터 풀어야 한다.

학생 : 주습이란 무슨 뜻입니까?

芑山선생 : 주독이 곧 습독이다. 주습이란 비중을 이루고 구안이 과사하고 반신이 불수하며 혀가 강하고 말이 삼하게 되니 마땅히 습독을 내려야 한다. 이것을 풍으로 다스려서 땀을 내어서는 안 된다.

학생 : 어떤 처방을 써야 합니까?

芑山선생 : 창굴탕을 써야 한다.”

25) 上揭書. p. 284

“瘡이 등과 가슴에 다 있다는 것은 발산시키지도 말고 수렴시키지도 말라는 뜻이며, 주독에서 온 병은 주독을 먼저 풀어야 한다.”

19)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芑山出版社, 1998. p. 31

20)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芑山出版社, 1999. p. 93

문에 생명활동을 영위한다고 하였다. 즉 환경전체가 독이며 그 독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는 인체의 내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음지와 양지의 균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음식 물에는 다 독이 있고 인체가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²⁶⁾²⁷⁾²⁸⁾.

음식물과 환경이 다 인체에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인체가 어떻게 그 독을 이겨서 인체에 유리한 精을 만들어내는가가 생존의 관건이 된다.

인체가 해독능력이 떨어지면 옹저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처방명에 해독이나 패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처방들이 옹저에 많이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3) 양약을 오래 먹으면 독이 된다.

앞서의 경우와 같이 공기 음식물도 독소가 있는데 정제된 양약을 오래 복용하면 당연히 독소가 몸에 쌓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芑山은 양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였고, 임상 치료에 있어서도 양약을 오래 복용한 환자에게는 해독을 먼저 하고 질병치료를 하였다.²⁹⁾³⁰⁾³¹⁾

이는 양약 치료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양약을 오래 복용하여 축적이 되어서 인체에 독소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환자가 양약과 같이 먹어도 되느냐고 걱정할 때 이

에 대한 대답을 한 대목이다.

“보호자 : 양약과 같이 먹어도 됩니까?

芑山선생 : 당분간 같이 먹어도 됩니다. 이 약을 먹어서 삶이 빠져야 좋아지는 겁니다.³²⁾”

인체는 필요불가결하게 독소를 받아들이고 저항하며 살아간다. 양약으로 혈압이나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히 인체에 독소가 쌓이므로 해독을 먼저 염두에 두었다.

(4) 음식독을 면하는 법

이렇게 공기 물 음식물 모두에 독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芑山은 음식물이 서로 중화되면서 해독하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도록 하여 인체가 외적조건과 내적조건을 맞추어 해독능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다. 골고루 먹어야 하지만 병이 있을 때는 인체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음식을 주의하도록 하는 등의 해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³³⁾³⁴⁾³⁵⁾

병이 있을 때는 음식을 가려먹어야 하지만 평소에 양생을 위해서는 골고루 먹으면 인체가 적절하게 해독한다는 관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공기 모두 독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인체는 해독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해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음식과 섭생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음식을 찾아 먹을 게 아니라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인체가 알아서 해독하게 되어 있다. 질병치료를 있어서 해독이 안 되어서 온 병은 해독을 먼저 고려하여 치료하는 것은 芑山의 독특한 치료방법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병을 유발하는 독은 동의보감에서는 오래된 병, 이상 기후나 환경, 전염성 기원의 발생 및 음식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형상의학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치료에 있어서 해독을 우선으로 하며, 병이 나면 첫째 운동

26)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II, 서울, 芑山出版社, 1999. p. 374

“봄은 전부 균이야. 그래서 물고기는 균을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물고기가 균을 소화시킬 줄 알아야 병에 걸리지 않을지,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공기속의 균을 먹는 거야. 균은 독소지. 좋은 것이 오히려 나쁜 게 될 수 있어. 산소가 좋으면 산소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양지에 사는 균과 음지에 사는 균은 다 달라. 음지에 사는 균은 햇빛을 보면 다 죽고 마찬가지로 양지에 사는 균은 음지에 가면 다 죽게 되어 있다.”

27)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芑山出版社, 1998. p. 121

“해독이란 말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독이기 때문에 잘 맛을 수도 있고 안 맛을 수도 있다. 인체에 맞지 않을 적에는 독이 되고 인체에 맞을 때에는 독이 된다.”

28)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芑山出版社, 1998. p. 317

“학생 : 사람이 밥을 먹고 힘을 내는데 왜 힘이 나는 것입니까?
芑山선생 : 상극이란 개념은 우리가 독을 먹기에 활력을 갖는다. 밥을 좋아하면 음식독에 의해서 움직임 활력을 얻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독이다. 중독이 옹저를 불러일으킨다. 늙으면 음식독을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음식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학생 :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芑山선생 : 두부도 독이 있고 소주에도 독이 있고 과일에도 독이 있고 채소에도 독이 있다. 우리는 독을 먹고사는 것이다.”

29)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II, 서울, 芑山出版社, 1998. p. 204

“그리고 자금정을 쓴 것은 양약을 3개월 이상 오래 복용하면 약물중독이 되기 때문에 해독을 시킬 목적으로 쓴 것이다.”

30)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서울, 芑山出版社, 1997. p. 233

“그러나 양약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 약을 제대로 잘 받아들일 것인가? 양약을 오래 먹어서 약독이 있으니 자금정도 같이 쓴다. 해독단을 써야 이 약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감두탕 쓰면서 제독시켜도 된다. 이 약을 먹으면 양약으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된 것이 서서히 풀린다.”

31) 上揚書, 1997. p. 342

“약의 중독자는 약물의 중독을 제거시킴으로써 약을 투여하면 약 효과가 나온다. 이 환자의 경우는 호르몬제 피부약을 먹었으니 해독을 시킨 연후에 약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해독을 시킨 후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해독제를 10일간 쓰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약을 먹으면 원점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32) 上揚書, 1997. pp. 232-234

33)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芑山出版社, 1998. p. 121

“한의학의 근본은 원래 해독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므로 음식을 자주 바꾸어서 먹도록 했다. 봄에는 짜게 먹고 여름에는 시게 먹고 가을에는 달게 먹고 겨울에는 맵게 먹게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독이 된다. 인삼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삼개월이상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34) 上揚書, pp. 317-318.

“學生 : 飲食毒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芑山先生 : 1) 같은 음식을 사흘이상 먹지 말고 2) 한끼 식사에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고 3) 때를 맞추어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비닐 하우스로 재배하여 겨울철에 수박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 4) 반찬이나 과일, 채소를 주식인 밥보다 많이 먹으면 안 되고(다이어트 하는 아가씨들이 주식인 밥은 먹지 않고 끼니를 과일이나 채소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식중독에 걸리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벌레이기 때문이다) 5) 아침, 점심, 저녁 세 때를 꼬박 시간을 맞추어서 먹되, 아침은 왕처럼 많이 먹고 점심은 왕자처럼 적게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아주 적게 먹어서 취침 중에는 배속을 비워야 한다.”

35)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芑山出版社, 1998. pp. 218-219

“노쇠 : 사상의학에서는 태소음양인에 따라 음식을 갈라놓고 평소에도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芑山선생 : 난 이렇게 생각해. 사람이 건강할 때는 계절에 따라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몸이 알아서 스스로 가려주게 되어 있어. 요컨대 건강할 때는 양생을 위해서 체질의 음식을 먹고 또 골고루 먹어야 하지만 병이 들었을 때는 편식을 하여 가려먹어야 하지. 만약 부종환자가 오면 소금과 감미를 금해야 하고 소갈 환자가 오면 술과 면류, 구운 음식, 맵고 짠 음식은 금하라고 했어. 한 번 찾아봐 부종문과 소갈문을. 이제 음식을 어떻게 가려먹어야 하는지 알겠지?.”

으로써 조절하고, 둘째 음식을 조절하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약으로써 다스린다고 하였다. 또 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의 법도를 중시하고, 병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내적조건과 외적조건을 살펴 치료에 입하며, 치료는 환자의 특성에 따른 독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하여 형상을 살펴 형상에 합당한 처방을 선정하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2. 『東醫寶鑑』해독 처방의 形象醫學의 고찰

『東醫寶鑑』의 「解毒門」을 보면 「蠱毒」과 같이 현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毒도 있으나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방과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解毒門」뿐만 아니라 『東醫寶鑑』전편에 걸쳐서 해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음식물이 모두 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독방법이 두루 소개되고 있다. 酒傷에 대하여 김³⁶⁾이 자세히 고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형상의학회에서 독으로 인한 병증에 자주 사용하는 해독처방을 선정하여 형상의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1) 처방각론

(1) 황련해독탕

황련해독탕은 갈홍의 『肘後備急方』에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³⁷⁾, 『東醫寶鑑』에는 傷寒으로 열이 심하고 번조로 잠을 잘 수 없거나, 나온 후 술을 마셔 다시 심하게 된 것과 모든 열독을 치료한다고 하였다.³⁸⁾ 여기에서 발전하여 화가 많을 때, 토혈할 때, 혈붕, 장풍·장독, 하법을 쓴 후 열이 날 때와 같이 열이 심한 경우에 사용된다.³⁹⁾ 이 처방을 근간으로 청열해독탕⁴⁰⁾, 해독사물탕⁴¹⁾ 해독탕⁴²⁾ 청열해독산⁴³⁾ 기제해독탕⁴⁴⁾ 등으로 실화를 사하는 데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응용되어지고 있다.

현대에서 와서 황련해독탕의 해독효과에 대한 실험논문이 다수 존재한다. 杜⁴⁵⁾는 열독을 푸는 작용에 대하여, 승⁴⁶⁾은 간손상을 보호하는 효과에 대하여, 홍⁴⁷⁾은 니코틴 중독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안⁴⁸⁾은 궤양성대장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芝山은 황련해독탕에 대한 形象醫學의 해설을 붙여서 심화가 동한 경우나 눈 꼬리가 올라간 경우에 쓴다고 하였다. 부연하면, 화가 동하는 형상은 대개 눈 꼬리가 올라가 있거나, 얼굴이 붉거나, 얼굴이 들출형이면 화가 많은 경향이 있다.

(2) 영계출감탕

『東醫寶鑑』에서는 영계출감탕에 대하여 특별히 독을 제거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芝山은 물의 독성을 제거한다는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하였다.⁴⁹⁾⁵⁰⁾

앞서 살펴본 芝山의 해독사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에도 독이 있고 그제 사람에게 따라 병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형상에 따라 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음이란 병증을 水毒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영계출감탕은 담음의 형증이 있거나, 물사마귀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⁵¹⁾

(3) 익원산

익원산은 유⁵²⁾의 『傷寒直格』에 최초로 수록된 처방으로 활석, 감초의 이종약물로 구성되었으며六一散, 天水散, 神白散, 太白散이라고도 한다. 또한 활석 단방만으로 익원산이라고 한 경우도 있다.

『東醫寶鑑』에서 그 용도를 살펴보면 뇨혈, 허번불수, 열립, 석립, 적리, 백리, 이질, 화열 등에 利小便하여 實熱을 사하여 내독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있다.⁵³⁾ 특히 방해를 보면 온갖 약·술·음식의 독을 푼다고 하여 해독작용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⁵⁴⁾ 개에게 물린 독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⁵⁵⁾ 김⁵⁶⁾은 익원산이 간독성 및 신독성에 대하여 항해독 작용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익원산은 열독으로 화열이 성했을 때 이소변하여 열을 내려줌으로서 해독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변불리가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인삼패독산

인삼패독산은 朱肱의 『類證活人書』에 최초로 기재된 방제로 환인패독산 혹은 패독산이라고도 한다. 傷風, 溫疫, 風濕으로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사지가 아프며, 한기가 싫고 열이 심하며, 목덜미가 뻣뻣하고 눈이 아프며, 보통 風病으로 어지럽고 拘攣하고 피곤하며 風痰이 있을 때 모두 신효하다고 하였다.⁵⁷⁾

『東醫寶鑑』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嘔口痢, 疫痢, 風腰痛, 脚氣, 腸風, 臌毒, 傷寒表證, 四時傷寒, 水腫, 瘟疫 등과 諸般瘡癤에

36) 김민성, 酒傷의 形象醫學的 治療 및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Vol.5-1, 2004.

37) 葛洪, 肘後備急方,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4

38)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098

39) 上揭書 pp.79, 129, 176, 307, 854, 960, 1108, 1121, 1122, 1135, 1178, 1310

40) 上揭書 p.132

41) 上揭書 p.307

42) 上揭書 p.857

43) 上揭書 p.1507

44) 上揭書 p.1510

45) 두호경, 황련해독탕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1.

46) 承錦蘭, CCI4로 유발된 간손상에 대한 온청음과 Curcumin의 보호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47) 홍의재, 황련해독탕과 그 주성분인 황련이 니코틴 중독 환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48) 안중환, 황련해독탕이 DSS로 유발된 흰쥐의 궤양성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49)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芝山先生 臨牀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359

“留飲이란 병을 예로 들면 물을 먹어서 물의 독성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때에는 十棗湯을 쓴다고 되어 있지만 원화와 대극 등의 약을 쓰기가 좀 어려우므로 葶桂朮甘湯을 쓴다. 영계출감탕은 肥盛하던 사람이 暴瘦한 데 쓰는 藥이다.”

50) 揭書 p.373

“水毒性이란 물의 균이 인체에서 흡수되지 못해서 인체 내의 균이 그것을 잡아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水毒이라는 말인데 물의 층(水毒, 毒素)을 없애는 약이 葶桂朮甘湯이다.”

51)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학, 지산출판사, 서울 2003, P. 1106

52) 劉河間,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성보사, 1976. pp.487-488

53)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p.138, 154, 287, 359, 360, 364, 373, 382, 385, 386, 398, 399, 413, 440, 680, 1074, 1104, 1116, 1121, 1145, 1146, 1194, 1293, 1294, 1370, 1455, 1457, 1515, 1616, 1677, 1777, 1894, 1898, 1936

54) 上揭書, p.1146

55) 上揭書, p.1677

56) 김장현, 익원산이 Ethionine 중독가토의 혈청중 Transaminase 활성 및 Na⁺, K⁺과 Creatinine 함량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57) 朱肱, 임진석 옮김, 類證活人書, 서울, 아티전, 1998. pp.339-340

도 쓰이고 있다⁵⁸⁾. 또한 인삼패독산을 가감하여 인삼강활산, 형방패독산⁵⁹⁾으로 쓰인다.

인삼패독산은 단순히 상한표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치지 않고 피부질환에까지 그 쓰임새가 넓혀져 있다. 癩疹에 청기산, 癰疽에 연고패독산, 諸瘡에 삼황패독산과 平血飲, 下疳瘡에 소감패독산, 天庖瘡에 소풍패독산⁶⁰⁾ 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상을 보면 인삼패독산은 상한표증을 치료하는 처방이었으나 더 확장되어 열독이 심해져서 오는 嘔口痢, 溫毒, 癰疽, 發癩, 瘡이 된 경우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근래에 김철중⁶¹⁾은 독성으로 진행된 급성신부전에 응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또한 인삼패독산이 독성을 제거한다는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芑山은 인삼패독산은 담체, 소양경과 수족이 발달한 사람이 잘 맞는 형상이고, 상한표증으로 피부호흡이 안 될 때, 유행성 감기 그리고 온역 등에 쓴다고 하였다.⁶²⁾

(5) 방풍통성산

防風通聖散은 劉完素⁶³⁾의 『宣明論方』에 최초로 기재된 처방으로 表證에 內熱을 겸한 경우에 쓰는 表裏雙解之劑로서 一切의 風熱과 飢飽勞役의 內外諸邪에 損傷되어 氣血이 沸鬱하고 表裏와 三焦가 俱實⁶⁴⁾한 증을 치료한다고 하였다.⁶⁵⁾

『東醫寶鑑』에 나온 조문을 살펴보면 머리, 이목구비, 체간, 사지, 피부를 가리지 않고 전신에 두루 쓰임새가 있다.⁶⁶⁾ 따라서 질환이 전신성으로 온 경우 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처방이다. 이 처방의 의미에 대하여 汪昂⁶⁷⁾은 汗하되 表를 傷하지 않고 下하되 裏를 傷하지 않으니 溫養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芑山은 방풍통성산을 다양하게 구사하였는데, 주독과 내외 독을 푼다는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였다.⁶⁸⁾⁶⁹⁾

방풍통성산에 대하여 김⁷⁰⁾은 방풍통성산이 陽明形, 풍인에게 잘

맞는다고 보고하였고, 구⁷¹⁾는 피부병에 대하여 내독과 외독을 제거하는 관점에서 방풍통성산을 처방한 치험 증례를 보고하였다.

(6) 서각지황탕

서각지황탕은 손⁷²⁾의 『備急千金要方』에서 최초로 입방되었고 공⁷³⁾은 여기에 당귀·황금·황련을 가하였다. 『東醫寶鑑』에서 서각지황탕이 축혈증·녹혈·구혈·치육·치혈약법 등 주로 어혈이 상부에 있는 경우에 쓴다고 하면서도 단독에 창양·두창·해독에도 쓰임새가 있다⁷⁴⁾고 하였다.

박⁷⁵⁾은 서각지황탕이 어혈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아직 해독의 입장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

鄒澍는 표증이 있을 때 피부사이에 이상이 있으면 독이라고 할 수 있고, 犀角은 陽毒과 陰毒이 있어도 表證이 있을 때만 쓴다고 하였으며, 內外가 모두 뜨거운 독을 모조리 들어 올려 흡는 작용을 하여 안으로 장부에서 외부 肌膚와 상부 꼭대기까지 모든 毒을 풀고 모든 열을 없앤다고 하였다.⁷⁶⁾

서각지황탕이 어혈에 효과가 있으면서 열독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⁷⁷⁾ 열독이 성하여 혈이 체외로 나오는 정도의 강한 독성을 해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머리의 타박상이나 양명형의 경우에 쓴다.⁷⁸⁾

(7) 소독음, 서각소독음

『東醫寶鑑』에서 소독음은 이름은 같으나 내용이 다른 처방이 존재한다. 『眼·臉生風粟』에는 『得效方』에서 인용되어 대황·형개·우방자·감초로 구성되어 있고, 『癰疽·便癰』에는 『단계심법』을 인용하여 조각자·금은화·방풍·당귀·대황·과루인·감초로 구성되어 있고, 『東醫寶鑑·小兒·痘瘡』에서는 『古今醫鑑』을 인용하여 우방자·형개·방풍·감초로 구성되어 있다.

서각소독음은 『단계심법』을 인용하여 우방자·형개·방풍·감초에 서각이 더 들어간 처방인데, 처방구성을 보면 『고금의 감』의 소독음에 서각이 더해진 처방으로 이해된다.

모두 丹毒, 癰疽나 瘡에 쓰이는데, 독기가 표에 머무를 때 發散하는 의미로써 해독에 쓰일 수 있다.

(8) 십전대보탕

十全大補湯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 收錄되어 있는 處方으로 十全大補에서 十의 字義는 天地成數이며, 完全한 것이며, 八方에 上下를 합쳐 온갖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東醫寶鑑』에 나타난 십전대보탕의 용례를 보면 九竅出血, 瘡不得語, 通血治法, 虛暈, 眼生眵膜, 四肢不用, 寒厥, 風痺, 氣血

58)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p. 404, 411, 788, 1071, 1072, 1414, 1651, 1652
 59) 上揭書, pp. 1072-1073
 60) 上揭書, pp. 731, 1549, 1609, 1638, 1606.
 61) 김철중, 보충의기탕 및 인삼패독산이 Gentamicin sulfate로 유발된 백서 급성신부전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62)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芑山出版社, 1998. p. 172
 63) 劉完素(1110-?) 字는 守真, 自號는 玄通處士 金나라 河間사람.
 64) 劉完素: 宣明論方 卷十 서울 麗江出版社 1988. p. 768
 65) 김준홍, 방풍통성산의 문헌 및 形象醫學의 고찰, 대한형상의학회지 Vol. 7-1, 2006. p. 90
 66)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p. 465, 502, 552, 553, 566, 569, 630, 730, 732, 809, 957, 960, 985, 986, 995, 1003, 1005, 1010, [1011], 1033, 1036, 1074, 1167, 1178, [1195], 1214, 1509, 1540, 1599, 1601, 1603, 1605, 1610, 1635, 1905
 67) 汪昂 醫方集解의 著者
 68)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VII, 서울, 芑山出版社, 1999. p. 123
 "양명이기 때문에 풍열로 해서 병이 생기며 또 양명은 보통 몸이 달고 주새도 좋아하고 그러기에 주독을 풀기 위해서나 열에서 풍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제통성산을 투여하지 않을 수 없다."
 69)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芑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芑山出版社, 1999. p. 250
 "楊梅瘡으로 인한 皮膚病이다. ①防風通聖散 去 麻黃, ②防風通聖散 去 大黃 芒硝를 교대로 쓰면서 ③加減通聖丸을 계속 복용한다. 內毒과 外毒을 푸는 방식을 써야 된다. 즉 병을 흔들어 주어야 한다. 땅에 박힌 말뚝을 뺄 때도 좌우를 흔든 다음에 뽑아야지 바로 뽑으면 잘 안 된다."
 70) 김준홍, 방풍통성산의 문헌 및 形象醫學의 고찰, 대한형상의학회지

Vol. 7-1, 2006.
 71) 구교성, 창양의 방풍통성산 치험례, 대한형상의학회지 Vol. 7-1, 2006.
 7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대성문화사, 1984. p. 205
 73)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형림서원, 1975. p. 211
 74)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24, 127, 128, 129, 140, 143, 599, 1057, 1103, 1795, 1815, 1905, 1924, 1940, 1946, 1952, 1953
 75) 박상재, 김성훈, 서각지황탕과 가미서각지황탕이 Endotoxin으로 유발된 백서의 혈전증에 미치는 영향, 동의병리학회지 Vol. 6, 1991.
 76) 鄒澍, 임진석 옮김, 本經疏證, 서울, 아티전, 1998. p. 669-672
 77)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130
 ⑨ 땀은 심의 액이다. 열이 있으면 붉게 변하여 거슬러 올라 상부의 구멍으로 나온다. 상간에 汗法을 잘못 쓰면 열독이 오장으로 들어가 열독을 만든다.
 78)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서울 2003, P. 772

虛, 癰疽, 瘰癧, 翻花瘡, 產後 虛勞 등에 보이고 있는바 인체의 음양기혈을 조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⁷⁹⁾

십전대보탕이 해독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은 정확하게 없으나, 芝山은 해독의 의미를 파악하여, 肥白한 노인의 수족마비감을 치료하면서 비록 六君子湯이 맞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지만 양약을 40년째 복용중이라 십전대보탕에 지모·황백을 가하여 처방하였다.⁸⁰⁾

이로 보아 십전대보탕이 양약에 대한 해독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인체의 해독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으므로⁸¹⁾, 이를 보강하는 의미도 된다.

박태숙⁸²⁾ 등은 십전대보탕에 대하여 形象醫學의 연구를 하였으며, 십전대보탕의 형상으로는 대개 精科, 面黃者, 頭大者, 체형의 상하좌우 불균형한 자를 말했다⁸³⁾.

현대에 와서 십전대보탕의 해독과 관련하여 보고된 연구로서 오⁸⁴⁾는 방사선 장해를 경감한다고 보고하였고, 박 등⁸⁵⁾은 항알레르기 효과 있음 보고하였고, 박 등⁸⁶⁾은 납중독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9) 감두탕

감두탕은 흑두 감초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인데, 흑두 단방만으로 감두탕이라 하기도 한다.⁸⁷⁾ 『東醫寶鑑』을 살펴보면 열독, 급성의 약독으로 응저가 생긴 경우, 초오독, 철쭉독, 낭탕독을 앓으며 백물을 통치한다고 하였다.⁸⁸⁾ 일반 독의 제반 증상을 대소변으로 통리시켜서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정⁸⁹⁾은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손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⁹⁰⁾는 카드뮴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10) 자금정

자금정은 오배·산자교·대극·속수자·사향으로 구성되며 태을자금단, 만병해독단이라고도 한다⁹¹⁾. 방해해 보면 고독·도생독·여우·너구리·쥐·잡초·독버섯·복어·죽은 소·말고

기의 독·산람장기의 독·여러 가지 약이나 금석, 초목, 조수, 온갖 벌레의 독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마독을 치료하는 경우에 보면 자금정을 먹고 토하거나 설사하면 낫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토법, 하법에 모두 쓸 수 있는 처방이다.

진⁹²⁾은 자금정이 카드뮴 축적을 방해하고 농약배출효과가 인정된다고 보고하였다.

芝山은 양약을 오래 먹은 환자에게 자금정을 투여하여 양약의 독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 『東醫寶鑑』에서 해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처방들을 살펴보았다. 내독을 해결하는 처방으로서 황련해독탕은 독열이 상부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영계출감탕은 수독에 사용한다. 익원산은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외독을 해독하는 처방으로 인삼패독산이 있으며, 방풍통성산은 체표·두부·체간·사지를 가리지 않고 전신성 질환일 때도 유효하다. 서각지황탕, 소독음, 서각소독음은 열독으로 어혈이 생겼을 때 어혈을 풀면서 해독한다. 십전대보탕은 중화의 의미로 인체의 순환을 좋게 하여 인체의 자연스러운 해독기전을 도와준다. 감두탕과 자금정은 일반 중독 증상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

3. 임상례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된 회원들의 임상례를 정리한 임상경험집⁹³⁾ 중에서 앞서 설명한 해독 처방에 해당되는 치험례 중 우수한 치험례를 선정, 인용하였다.

1) 임 OO 남자 41세 (2004년 03월 20일 초진)

【形】 精科, 이마 넓고, 안경.

【色】 面赤

【脈】 74 / 74

【症】 ① 술 먹고 나면 다음날 속이 쓰리다.

② 주 3회 이상 음주.

③ 대변이 무르다.

④ 술 먹고 나서 토할 것 같으나 토하지는 않는다.

【治療 및 經過】

① 05/03/20 葛花解醒湯 20貼,

② 05/04/25 속 쓰림은 덜하다. 머리 가렵지는 않으나 비듬은 나온다.

③ 葛花解醒湯 20첩.

④ 05/11/02 머리에 뽀루지가 생긴다. 황련해독탕 가 같은 3돈 1제.

⑤ 06/03/20 작년에 약 먹고 한 동안 잘 지냈으나 다시 속이 쓰리다.

⑥ 황련해독탕 가 같은 3돈 20첩

⑦ 06/09/15 그 동안 잘 지냈으나 술을 계속 마셔서 속이 쓰리다.

⑧ 황련해독탕 가 같은 3돈 20첩

【窮理와 變通】

79)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p.142, 174, 300, 450, 528, 774, 784, 989, 1189, 1261, 1275, 1553, 1586, 1614, 1647, 1810
 80)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234
 “左側 手部の 麻痺感은 氣虛濕痰이므로 陽氣를 돌려줘야 하나 老人이므로 虛勞藥을 쓴다. 만일 洋藥을 먹지 않았다면 六君子湯을 投與하고 瀉은 사람이라면 麻木으로 보고 雙合湯을 줄 수 있다.”
 81)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317
 82) 박태숙 외 3인, 십전대보탕에 대한 形象醫學의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15권 4호, 2001.
 83) 대한형상의학회 編 ; 芝山形象醫案, 서울, 芝山出版社, 2006. p.952
 84) 오현, 대표적 생약의 방사선 장해 경감효과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85) 박동일 외 2인, 십전대보탕이 알레르기반응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17권 2호, 2003
 86) 박종필 남궁동, 연중독 백서의 독성에 미치는 십전대보탕의 효과, 전주석대대학교 논문집 제 15집, 1993
 87)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p. 1701, 1198.
 88) 上揭書, pp.1548, 1694, 1695, 1696, 1700, [1701]
 89) 정세훈, 감두탕이 사염화탄소에 의한 랫드의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90) 이인숙, 흰 쥐의 체내 카드뮴 축적에 대한 감두탕의 억제효과,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91)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p.1399, 1523, [1524], 1578, 1580, [1581], 1588, [1589], 1687, 1696

92) 진영상, 자금정의 해독작용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 논문집 제5집 제2권, 1986
 93) 대한형상의학회편집위원회 편, 형상의학임상경험집, 서울, 芝山出版社, 2006.

이 환자는 술을 많이 자주 마시는 편이다. 처음에는 토할 것 같은 느낌도 호소하고 머리로 평하고 어지럽다고 하고, 식욕도 없다고 하여, 방광체의 주상에 쓰는 갈화해정탕을 투여하여서 약간의 효과를 보았다. 그런데, 술을 계속 마셔왔던 사람이라서 주독이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약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황련해독탕에 갈근을 3돈 가하여 투여하였더니 본인이 아주 만족해 하였다. 속이 쓰리고 토하는 것도 화에 속하므로 황련해독탕을 생각하였고, 주독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근 3돈을 가하였다.

2) 안 OO 남자 40세 (2006년 9월 19일 초진, 국회의원 보좌관)

【形】突出形, 담체, 안경.

【色】浮澤赤

【脈】81 / 86

【症】① 업무상 거의 매일 술 마신다.

②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트림을 자주한다. 배가 아프지는 않다.

③ 가슴이 답답하다.

④ 치질이 조금 있다. 가끔 혈변을 본다.

⑤ 말을 하다가도 트림이 조금씩 나온다.

【治療 및 經過】

① 09/19 황련해독탕 가 갈근 3돈, 20첩

② 10/10 약 복용 후 몸이 아주 편하다. 上同 20첩

③ 07/09/12 다시 술병이 도졌다라고 전화옴. 속이 쓰리고 트림 나온다.

④ 황련해독탕 가 갈근 3돈, 20첩

⑤ 07/12/03 여전히 술은 많이 마시고 사업준비하느라 신경 많이 쓴다. 上同 20첩

【窮理와 變通】

突出形으로 七情 鬱火가 상승하는 체질이다. 피부가 붉으면 서도 검어서 주독이 심하다고 생각되었다. 트림을 자주 하고 식도염이 있는 것은 화에 속한다. 또한 치질에는 사물탕에 황련해독탕을 합해서 쓴다고 하였다⁹⁴⁾. 이 환자의 경우는 혈허의 증상 보다는 번조의 증상이 많기 때문에 황련해독탕을 생각하였고 酒傷의 기본인 갈근을 더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3) 김 OO 여자 49세.(2006년 4월 9일 初診⁹⁵⁾)

【形】頭大, 氣科, 陽明形.

【色】赤

【脈】80 / 76

【症】

① 감기가 잘 든다. 양약을 자주 먹는다.

② 방광염이 자주 있고, 방광염이 오면 허리와 배가 아프다.

③ 두통.

④ 등이 아프다.

⑤ 발등이 겨울에 시리고 여름에 뜨거워서 얼음을 올려 놓을 정도

【治療 및 經過】

① 2006년 4월 8일. 『東醫寶鑑·氣淋』 팔물탕 가미방 썼으나

별무효.

② 2006년 4월 21일. 우선 두통을 해결하고자 養血祛風湯 1제.

③ 2006년 5월 1일. 두통은 호전됨. 감기기운이 있어서 갈근해기탕 1제.

④ 2006년 5월 12일. 감기는 호전됨. 방광염이 있어서 八正散 반제.

⑤ 2006년 5월 20일. 별무효. 속이 쓰리다고 하여 화담청화탕 1제.

⑥ 2006년 6월 2일. 내상은 해결되었으나 방광염 증상이 있어서 사물탕 가 지모 황백 활석 호박 1제.

⑦ 2006년 6월 13일. 소변이 시원치 않다고 하여 오령합해독탕 1제 씹. 별무 효과.

⑧ 2006년 6월 24일 익원산 가 목향·빈랑·소회향 1돈. 1제 복용 후 방광염이 개선됨. 2제 더 투여. 그 후로 방광이 없어졌다. 발등의 열도 꺼졌다.

⑨ 2007년 3월 12일 다시 소변이 시원치 않다고 하여 익원산 가미방 3제 투여.

【窮理와 變通】

상기 환자는 陽明形으로 49세이므로 기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팔물탕을 먼저 생각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얼굴도 붉은 기운이 있고 맥이 胞·胃에 떨어져 열이 있는 것을 간과하였다. 陽明形의 열증 감기에 쓰는 갈근해기탕을 써서 외감은 좋아졌으나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고 하여, 팔정산을 써도 오령산에 황련해독탕을 합하여 투여하여도 효과가 없었다. 마침 여름이 다가와서 익원산을 생각하여 투여하였는데 효과가 좋았다. 두통, 감기로 양약을 자주 먹어서 몸에 독소가 쌓여서 소변불리가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단독 환자의 서각소독음 치험례⁹⁶⁾

(1) 안 OO, 여자 26세 (2005년 5월 6일 초진)

【形】입, 눈 발달.

【色】面黑, 탈색(윤기가 없다).

【脈】64 / 68

【既往歷】 소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고, 중학생 때 팔 오금 부위가 가려웠다. 한약을 쓰면서 관리가 되는 듯하다가 2005년에 들어와 피부가 검게 부르렀다.

【症】

① 전신에 아토피 피부염 - 특히 얼굴, 눈 주위, 가슴 위로 심하여 검게 거칠게 변색되었다. 상처가 벌어져 黃水가 나온다. 부기가 있다. 寒熱往來.

② 자세가 불편하면 배에 가스 찬다.

【治療 및 經過】

① 寒熱往來와 붓기가 있는 것을 보고 가미불환금정기산 1제 투약.

② 2005년 5월 21일 - 붓기는 조금 빠졌으나 여전히 있었다. 서각소독음 1제 투약.

③ 2005년 5월 31일 - 이후 붓기가 빠지고 얼굴에 열이 덜 오른다. 그러나 밤에 열이 올라 깬다. 서각탕 1제 투약.

94) 許浚 ;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p. 855

95) 본디을 계룡한의원, 김민정 원장 임상레임.

96) 대한형상의학회 편집위원회, 형상의학 임상경험집, 서울, 芝山出版社, 2006. p. 456

④ 2005년 6월 16일 - 얼굴에서 코를 중심으로 X자 모양으로 밝아지기 시작하여 뺨과 이마가 밝아짐. 그러나 눈가에 살이 벌어지고 진물난다. 『醫宗金鑑·黃水瘡』의 승마소독음 투약

⑤ 2005년 6월 28일 - 진물 나는 것은 아물었으나 다시 벌어졌다 아물었다 반복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호전되어 얼굴색은 밝아졌다. 8월 20일까지 犀角消毒飲 6제 투약. 얼굴에서 눈꺼풀을 제외하고 색깔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考察】

① 상기 환자는 입, 눈이 발달하여 습체에 속하고 소모성 체질이다. 그런데 섭생 특히 내상질정의 문제로 열이 올라 심해져 瘡類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므로 서각소독음을 투약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② 『東醫寶鑑·皮·丹毒』에 “간혹 창이 난 곳을 잘못 건드려 주위가 화끈거리면서 벌겍게 된 것을 瘡癰이라고 하는데, 모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닌다. 그 모습은 얇게 된 구름과 같다.”고 하였다.

③ 진물이 심할 때는 『醫宗金鑑·黃水瘡』에 나오는 승마소독음을 써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

④ 이 경우는 흑인처럼 얼굴이 검은 빛이었으나 『東醫寶鑑』의 조문에 근거하여 알맞은 처방을 투약하니 1개월 만에 얼굴빛이 희어져 매우 좋은 효과를 보았다. 물론 약을 투약하는 도중에 3~6일 간격으로 증상이 심해졌다 좋아졌다 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호전되는 쪽으로 흘러갔다. 처방을 정한 뒤에는 큰 변화가 없는 한 꾸준히 투약하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 치험례이다.

5) 마황 복용후 생긴 부작용에 대한 감두탕 치험례⁹⁷⁾

(1) 강 OO 15세 (2005년 10월 10일 초진)

【形】 臍體.

【色】 白色, 혈색이 약하다.

【脈】 100 / 102 맥상은 유력하다.

【症】 평소엔 천식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마황을 달여서 먹으면 천식이 치료된다고 하여 單味로 1번 이상 복용한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게 되었다.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해서 별 이상이 없고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 집에 와서 다시 인터넷에 보니까 마황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감초를 달여 먹으라고 해서 먹으니까 조금 진정은 되는데 큰 차도가 없어 보호자가 환자를 업고 내원하였다.

【治療 및 經過】

① 허증인데 실증에 쓰는 약물을 사용하여 생긴 부작용으로 보았다. 상태가 나쁘므로 감두탕 1일분 투약.

② 2005년 10월 11일 맥 80/78 증상이 호전되어서 혼자서 걸어 왔다. 감두탕 3일분 투약하고 완치되었다.

【窮理와 變通】

① 상기 환자는 脈이 무력하고 혈색이 없으며 피부가 희므로 허증인 환자이다. 천식의 증상이 있더라도 병을 虛와 實로 나누어 치료해야 하는데, 이 환자는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천식이란 병만 생각해서 효과를 보려다가 낭패를 보게 된 케이스이다.

특히 마황은 피부가 흰 사람보다는 검고 실한 사람에게 쓴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② 예전에 芫山 선생은 단방을 쓸 때는 특히 조심하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단방은 한곳으로 직입하므로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 상기 환자가 단방을 써서 부작용이 심하였던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현재 상황은 몸도 허하지만 약물 부작용의 증상이 급하므로 모든 약물의 중독을 풀어주는 감두탕을 투약했다. 그러나 위낙 증상이 심하고 맥이 약해서 일단 1일분만 주고서 반응을 살폈다. 어느 정도 유효한 효과를 보았으므로 다시 3일분을 투약하여 치료하였다.

6) 김OO 36세 (2002년 11월 2일 초진)

【形】 走類

【脈】 81 / 81

【症】

① 10일전 小喪 참석하고 과수원에 갔다 온 후로 가렵고 반질. 처음에는 겨드랑이 목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온몸으로 번짐. 낮에도 가렵고 밤에는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

② 과수원에 가서 과일주를 먹는데 냄새가 향기롭지 못했다.

③ 서울대 병원에서 피부약 먹는데 일주일이 경과했으나 별 무효.

【治療 및 經過】 자금정 15알 처방하여 하루 2회 1환씩 복용케 함. 일주일 후 전회했는데, 이틀만에 피부 반점이 없어지기 시작하여 일주일 지나면서 피부가 원상태로 깨끗해졌다고 함. 치료 종결.

【考察】 상기 환자는 평소 건강하고 생활도 법도에 거스르지 않는 편이었고, 성격도 차분하여 평소에 화열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다만, 상가집 다녀오고 과로한 상태에서 상한 과일주를 마셔서 병이 왔다고 보았다. 이 경우 술로 인한 酒毒이라기 보다는 상한 음식으로 인한 毒으로 보아 자금정을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해독에 대하여 形象醫學의 고찰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독에 대하여 동의보감에서는 오래된 병, 이상 기후나 환경, 전염성 기운의 발생 및 음식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형상의학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치료에 있어서 해독을 우선으로 하며, 병이 나면 첫째 운동으로써 조절하고, 둘째 음식을 조절하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약으로써 다스린다. 형상의학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공간·장소·방위의 외적조건과 음식·거처·음양·회노의 내적조건이 합일되어 살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몸에 독소가 쌓이고 질병이 생긴다고 본다. 해독에 있어서도 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의 법도를 중시하고, 병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내적조건과 외적조건을 살펴 치료에 임하며, 치료는 환자의 특성에 따른 독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하여 형상을 살펴 형상에 합당한 처방을 선정하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芫山은 모

97) 대한형상의학회 편집위원회, 형상의학 임상경험집, 서울, 芫山出版社, 2006, p. 773

든 음식물과 공기도 독이 있으므로 계절에 따라 음식물을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음식물은 서로 중화가 되게 골고루 먹어야 한다. 같은 음식물이나 약을 오랜 기간 계속 먹으면 몸에 독소가 생기므로 치료에 입할 때 해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黃連解毒湯은 화열을 치료하므로 병소가 상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防風通聖散은 전신성 질환에 활용할 수 있다. 益元散도 火熱을 내리는 처방이며 利小便을 위주로 해독한다. 상한표증이 심해진 경우 열독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인삼패독산은 상한표증을 치료하면서 해독하는 의미가 있다. 犀角地黃湯, 消毒飲, 犀角消毒飲도 熱毒이 표에 있을 때 독을 풀어주는 처방이 된다. 십전대보탕은 중화작용으로서 해독기능을 보강해준다. 감두탕과 자금정은 일반적인 해독에 널리 효과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Grant No. B070022)"

참고문헌

1. 葛洪. 肘後備急方.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1996.
2.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행림서원, 1975.
3. 대한형상의학회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VI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4. 대한형상의학회 編. 芝山形象醫案. 서울, 芝山出版社, 2006.
5. 대한형상의학회 편집위원회 編. 형상의학임상경험집, 서울, 芝山出版社, 2006.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대성문화사, 1984.
7. 시드니 맥도날드 베이커, 김광익 역. 해독과 치유. 서울, 창조문화, 2004.
8. 劉河間.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성보사, 1976.
9. 朱肱. 活人書. 임진석 옮김, 서울, 아티전, 1998.
10. 鄒澍. 本經疏證. 임진석 옮김, 서울, 아티전, 1998.
11. 해독한의원. 내몸을 살리는 해독 경기. 느낌이 있는 책, 2007.
12. 許浚. 對譯東醫寶鑑. 河東, 東醫寶鑑出版社, 2005.
13. 홍종희. 고영리. 당신의 삶을 해독하라. 서울, 동아일보사, 2007.
14. 구교성. 창양의 방풍통성산 치험례. 대한형상의학회지 7(1), 2006.
15. 김민성. 酒傷의 形象醫學的 治療 및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5(1), 2004.
16. 김승모. 황련해독탕이 반묘의 독성에 미치는 영향. 경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7. 김장현. 익원산이 Ethionine 중독가토의 혈청중 Transaminase 활성 및 Na⁺, K⁺과 Creatinine 함량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18. 김준홍. 방풍통성산의 문헌 및 形象醫學的 고찰. 대한형상의학회지 7(1), 2006.
19. 김진돈, 이현정. 生活 法度에 대한 形象醫學的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5(1), 2004.
20. 김철중. 보중의기탕 및 인삼패독산이 Gentamicin sulfate로 유발된 백서 급성신부전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21. 두호경. 황련해독탕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1.
22. 박동일 외 2인. 십전대보탕이 알레르기반응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2), 2003.
23. 박상채, 김성훈. 서각지황탕과 가미서각지황탕이 Endotoxin으로 유발된 백서의 혈전증에 미치는 영향. 동의병리학회지 6, 1991.
24. 박종필, 남궁동. 연중독 백서의 독성에 미치는 십전대보탕의 효과. 전주우석대학교 논문집 15, 1993.
25. 박태숙 외 3인. 십전대보탕에 대한 形象醫學的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5(4), 2001.
26. 손정민. 방풍통성산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모델의 피부 손상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27. 承錦蘭. CCl₄로 유발된 간손상에 대한 온청음과 Curcumin의 보호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28. 안중환. 황련해독탕이 DSS로 유발된 흰쥐의 궤양성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29. 오현. 대표적 생약의 방사선 장애 경감효과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30. 이동현. 방풍통성산 및 방풍통성산 가미방이 항알레르기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31. 이인숙. 흰 쥐의 체내 카드뮴 축적에 대한 감두탕의 억제효과.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32. 이종우. 서각소독음 및 서각소독음 가미방의 항알레르기에 관한 실험적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33. 이준호. 해독에 사용된 침구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34. 정세훈. 감두탕이 사염화탄소에 의한 랫드의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35. 진영상. 자금정의 해독작용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 논문집, 5(2), 1986.
36. 홍의재. 황련해독탕과 그 주성분인 황련이 니코틴 중독 흰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